

【보도시 자료출처 표기 바랍니다】

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& Drug Administration	참 고 자 료				안심주고 기쁨주는 식약안전의 첫단추 KIFDA 식약약품 정보정보 서비스 http://kifda.kfda.go.kr
	배포일시	7. 25	보도일시		
	식중독 예방관리 T/F팀	팀 장	손 문 기 (011-9070-5611)	☎	(02)380-1635
		연구관	강 윤 숙 (011-203-6335)	E-mail	yunsook@kfda.go.kr

여름철!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주의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을 맞아 수산물 섭취시 장염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을 특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여름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에 있는 장염비브리오균이 활발히 증식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, 여름철에 어패류 등 수산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할 것과,

○ 특히, 회 등 날 것으로 섭취하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칼·도마·행주 등 조리기구를 반드시 구분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, 자주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식약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환자는 2,242명으로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※ 4년간 전체식중독 환자수(34,841명) 중 장염비브리오 환자 2,242명(6.4%)

※ '03년 : 22건(732명), '04년 : 15건(300명), '05년 : 17건(663명), '06년 : 25건(547명)

☞ 부임 1 : 월별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발생 현황

-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6월부터 10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, 특히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어패류 등 수산물 취급 및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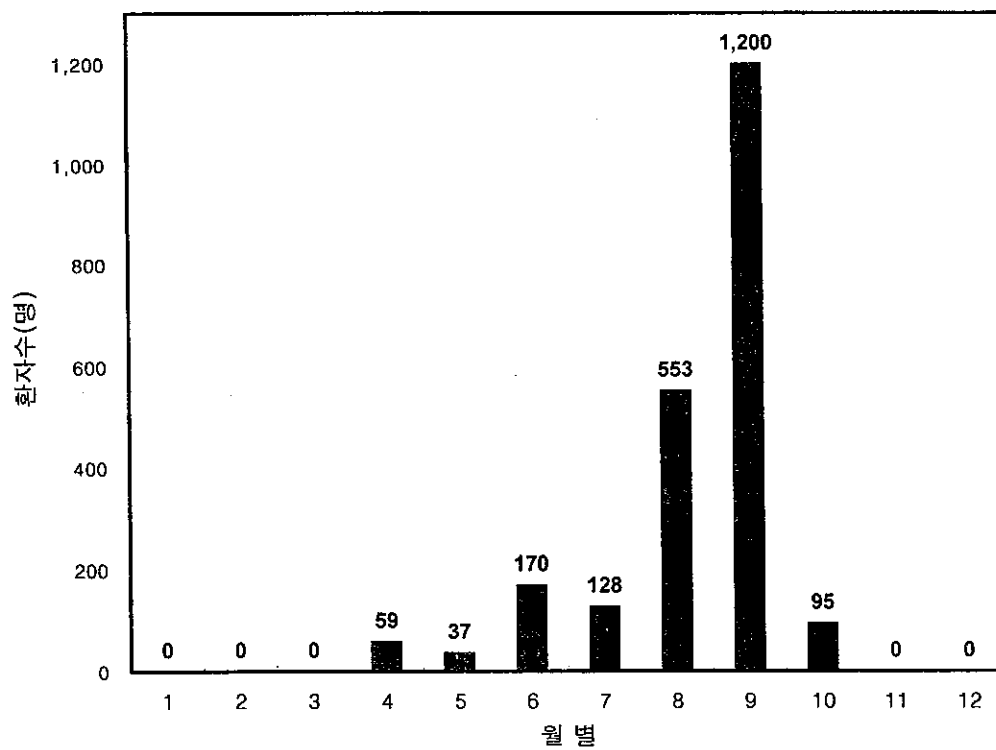
※ 전체 장염 비브리오 환자 중 78%(1,753명)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
(2003년~2006년)

- 식약청은 장염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「장염비브리오 식중독예방 4대 요령」을 실천하여 식중독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☞ 붙임 2 :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예방을 위한 4대 요령

☞ 붙임 3 :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의 특징

<붙임 1>



<4년간 월별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환자 현황>

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예방 4대 요령

I. 청 결

- ◆ 손과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기
- ◆ 칼, 도마, 행주 등 조리기구와 주방을 청결하게 관리하기

II. 신 속

- ◆ 어패류는 가급적 신속히 조리하고, 조리 후 즉시 섭취하기
- ◆ 어패류는 1~2일 이상 냉장보관하지 않으며, 오래 보관한 어패류는 유통기한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기

III. 냉장 및

- ◆ 어패류는 항상 신선하게 냉장 보관하기
- ◆ 조리시 중심부를 74℃ 이상의 온도로 약 1분간 가열하기

IV. 신선 및

- ◆ 생선회를 만들 경우, 반드시 신선한 어패류 사용하기
- ◆ 전용 도마와 칼을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

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의 특징

□ 장염비브리오균이란?

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의 일종으로 염분이 높은 바닷물에 존재하면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활발하게 번식하여, 주로 여름철에 어패류를 오염시키고, 오염된 어패류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교차오염 등으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.

□ 장염비브리오균의 특성

- 어패류의 경우 껍질, 아가미, 내장에 주로 분포함
- 20~37℃의 따뜻한 온도에서 빠르게 자라며, 1마리 균이 3~4시간 만에 100만 마리로 늘어남
- 5℃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는 잘 자라지 못함
- 다른 식중독균보다 열에 약하고 산성(식초, 레몬즙 등)에 약함

□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의 주요 발생원인

- 오염된 어패류(생선회, 생선초밥, 굴, 조개 등) 등을 날것으로 먹었을 경우
- 바닷물로 씻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
- ※ 칼, 도마, 행주 등 주방기구를 통한 교차 오염과 오염된 식품을 만진 조리자를 통하여 다른 식품을 오염시킴

□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증상

- 음식 섭취 후 6-48시간 내에 설사, 복통, 발열, 두통, 메스꺼움을 동반한 구토증세 및 근육통